

# 산불로 잃어버린 푸른 산과 마을의 봄날



## □ 개요

- 기관명 : 강원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수혜기관 현황>

- 설립목적 :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오늘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와이신협 3층
- 인원현황 : 4가구(수혜가구), 9명(기관의 근무인원)

- 일 시 :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5.11), 수익금 전달식(5.29)
- 내 용 : 강원도 산불피해 아동가구 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복구 지원을 위한 고시 개정
- 참석자 : 공단(5명),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10명), KT&G상상univ강원 자원봉사단(40명), 지역주민(1,000여명)
- 작성자 : 서유정 대리

## □ 내용

-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일대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2,832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어마어마한 산불은 수많은 이재민을 만들었고 지역 주민들 삶의 곳곳을 활꺾고서야 진화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은 물론이고 일터마저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보도를 접하고 강원지역본부 직원들은 피해지역으로 찾아갔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특히 피해지역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많이 한 지역이라 수많은 신재생에너지설비 피해도 예상되었습니다.

속초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주변에는 온통 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처음 보는 광경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러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아름다웠던 산과 마을은 화마가 삼키고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진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온통 황망한 마음뿐,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9. 4월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 현장확인

초등학생 자녀와 간신히 불길을 피했다고 말씀하시는 A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삶의 터전인 집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농장이 잿더미가 되어 하루하루 어찌 살아야 할지 고민이고, 아이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이나 태양열 집열판은 모두 녹아버려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자 그 후로도 여러 번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성군 및 속초시 일대 26가구의 34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가 전소 및 부분소손 된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 설비의 복구 및 수리를 위해 지자체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전소된 지열 히트펌프, 태양광 모듈

강원지역본부 직원들은 산불피해를 입은 아동가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피해가 있는 가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2 Track으로 지원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첫째로, 피해 아동가구 지원을 위해 수익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지역 내 뜻이 같은 기관들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춘천의 KT&G 상상마당에서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강원도지역 아동센터협의회, KT&G상상univ강원과 함께 「소외이웃돕기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부스, 나눔 공연, 바자회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이 산불 피해가구에 지원된다는 말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모금된 수익금에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의 사회공헌기금을 더하여 강원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고성지역 산불피해 이재민 중 피해정도가 심각한 아동가구(4가구)를 선발하여 산불피해복구비를 4개월 동안 지원하였습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19.5.11)



수익금 전달식('19.5.29)

둘째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피해가구의 복구 지원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부 고시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에 따라 신재생설비 보조 사업에 한번 참여한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피해가구가 보조 사업에 재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원지역본부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사에 건의하였고,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을 예외토록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산업부 고시 '제2019-6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3.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다행히도 현재, 규정 개정으로 산불로 전소 및 부분 소손된 신재생에너지설비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설치 완료된 현장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주민들을 만나면 빠른 복구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피해 복구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확인

지금도 그 때를 떠올리면 피해 현장의 쾌쾌한 탄 냄새가 먼저 생각납니다. 따뜻한 봄날을 즐겨야 할 시기에 갑작스레 겪은 아픔으로 두려움에 떨던 이재민들....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늘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강원지역 본부가 되고자 합니다.

- 에필로그

‘강원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홈페이지 : [cafe.daum.net/kwjckh](http://cafe.daum.net/kwjckh), 기관 연락처 : 033-262-2359

- 참고사항 : 산불은 꺼졌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형 화재로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갑작스러운 산불피해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